

정답 A형

1	2	3	4	5	6	7	8	9	10
①	④	④	①	①	④	②	④	②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②	④	③	③	③	③	①	②	③

해설

- integral(필수적인, 완전한) = ① key(중요한, 핵심적인)
(= essential, necessary, central, important)
- incidental(부수적인, 우연한) (=accidental)
- interactive(상호작용하는)
- popular(대중적인, 인기 있는)
- plasticity(가소성, 유연성, 적응성) = ④ suppleness
(= adaptability, pliability)
- accuracy(정확성)
- systemicity(체계성)
- obstruction (방해, 방해물)
(= barrier, hindrance, obstacle)
- 빈칸 앞에 메피스토가 서명과 계약서를 요구했다고 하고 빈칸 뒤에 그 악마는 모든 것을 원한다 했으므로, 빈칸에 단순한 ④ (구두의(verbal)) 계약서는 충분치 않다 로 가야 자연스럽다.
① genuine(진짜의)
② essential(필수적인)
③ reciprocal(상호간의)
- 빈칸 앞 문장에서 회사와 노동조합이 잠정적인 연봉협상에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빈칸은 그 이유에 해당하는데 빈칸 뒤에 좋지 않은 사업 환경이라는 말까지 나온 것으로 보아 빈칸엔 ①deteriorating(저하되는, 떨어지는)의 부정적인 느낌의 단어가 들어가야 한다.
② enhancing(향상되는) = improve, lift, boost, strengthen, reinforce
③ ameliorating(나아지는 개선되는)
④ leveling(비슷한, 평평하게 하는, 대등한, 수준을 맞춘) = balancing
- ① Convince 사람 that S V : (사람)에게 that S V를 확신시키다 구문으로 사람 "I"가 주어자리로 나갔으므로 convince를 수동태 형태인 I was convinced로 바꿔야한다.
② from scratch = 처음부터
③ 비교급 강조부사 even(훨씬)
④ 병렬구조 making pumpkin 과 비교급 than을 중심으로 making cake를 병렬시키고 있다.
- ① find 목적어 P.P. 5형식 구조로 twisted가 목적격 보어 자리에 p.p.로 쓰였다.
② six-year-old 나이를 - 으로 연결해 놓을 때 year에 -s를 붙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관계대명사 that. 앞에 park라는 선행사와 that 뒤에 has been으로 시작하는 불완전한 문장이므로 주격 관계사로 쓰였다.
④ find it 목적보어 to V.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으로 wait를 to wait로 바꿔야한다.
- ① foreman(대표, 감독)이라는 사람 명사 앞에는 부정관사 a를 붙인다.
② 타동사: suffer 부상, 질병, suffer가 겪다 로 해석될 때 타동사로 쓰일 수 있다.
자동사: suffer from ~, ~로부터 고통 받다 일 때는 자동사로 쓰인다. 본문에는 앞에 wounds(상처)라는 단어가 있으므로 suffer는 타동사 "~을 겪다"로 쓰였기 때문에 suffering을 과거분사 suffered로 바꿔 앞에 있는 wounds를 꾸미도록 한다.
③ after(접속사) shards(주어) + penetrated(동사). 자리를 묻고 있다.
④ while it was loaded into에서 문장의 주어 the ice block과 같은 it을 생략하고 동사를 ing로 바꿔 분사구문으로 쓰고 있다.
- 빈칸 위 문장에 엔진과 문 타이어 등을 자세하게 봐야 한다고 하고, 빈칸 뒤에도 중고차 매매업자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다. ripped of란 표현이 "바가지를 쓰다" 이기 때문에 바가지 쓰기 싫단 내용의 ④ I don't

want to get ripped of가 적절하다

① 그래 사자

② 내가 먼저 탈게

③ 어떤 모델을 원하니?

- 빈칸 앞 "nano"에 대해서 빈칸 뒤에서 particles smaller~라고 언급하며 정의를 내리고 있다. 정의를 내리는 보기의 단어는 refer to(~을 지칭하다, 언급하다, 나타내다)밖에 없다.

① break in ~에 침입하다.

③ originate from ~에서 유래되다. 기원하다

④ lay over ~을 연기하다. 미루다.

- ① 미래에 발생하지 않을 일을 가정하는 가정법 미래로써

If S should/were to 동사원형~, S would/could/might 동사원형. 으로 맞는 문장이다.

②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수명사. 의 형태로 players 뒤에 s를 삭제한다.

③ "~하자마자 ~하다"의 표현으로 Hardly/scarcely/rarely had S p.p., when/before S 과거동사. 로 표현해야하므로 has를 had로 바꾼다.

④ have been made come out. make와 come out 두 개의 동사다 동시에 쓰이고 있다. have been made to come out으로 바꿔야한다.

- 첫 부분에선 "동물이 행복하듯이 인간도 행복해야 한다." 고 하지만 3번째 줄에 but ~ 부분에서 부턴 "인간이 그렇게 못하다" 라고 언급한다. 주어진 문장의 내용이 "if you are unhappy~" 로 시작하는 예시문장이라면 unhappy라는 단어와 행복하지 않다는 말을 연결시킬 수 있는 위치는 ②번 밖에 없다. 2번 뒤로는 "If you are happy~"로 시작하므로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다.

- 첫 문장에 "담배에 대한 강화된 규정이 다른 전반적인 분야로 퍼져 나가고 있다" 는 것이 주제문이다. ①번도 세금이나 광고 등에 대해서 언급하고 ③번도 이견 규정이 적용이 다른 산업에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④번 역시 앞 문장 ③번에 대한 보충 설명이 이어진다. 그러나 ②번만 규제조치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으므로 글의 흐름과 어긋난다.

- 빈칸 앞 문장에 "모국어가 외래어에 굴복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빈칸 뒤엔 "모국어가 지속될 것 이다" 라고 언급하고 빈칸을 기준으로 서로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기에서 반대의 의미를 가진 것은 ④번의 alternatively(대안적으로, 대신에)밖에 없다.

① typically(일반적으로, 전형적으로)

② consistently(꾸준히, 지속적으로)

③ similarly(비슷하게, 유사하게)

- 빈칸의 문장을 해석해보면 "상표를 붙이지 않고 테스트되는 제품이 더 객관적으로 평가된다는 생각은 완전히 _____하다" 라고 한다. 빈칸 뒤에 "현실세계에선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상품들을 평가하지 않는다" 라고 하기 때문에 빈칸엔 부정적인 내용의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③ misguided(잘못된, 틀린, 오해하는)이 적절하다.

① correct(올바른, 정답의)

② reliable(신뢰할만한, 믿을 수 있는)

④ unbiased(편견 없는, 공정한)

- 첫 문장에 미국인들은 그들의 운동과, 자유 시간 활동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언급하고 있고, 그 다음 문장부터 exercise와 free time activities를 recreation이란 단어로 바꾸어 표현하면 줄곧 미국인 recreation을 어떻게 여기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고로 답은 "③레크리에이션에 대한 미국인들의 접근방식. 이 적절하다

- 글의 중간 But을 중심으로 But 앞에는 우리의 집중을 너무 많이 사용해 우리가 느낌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나온다. But 뒤에는 There they are라고 말하면서 그 느낌들은 거기에 있다. 라고 말한다. 그 뒤에는 부연설명이 이어지며 답은 ③번에 "느낌들은 우리의 정신에 만연해있다"가 적절하다.

- But no one is there(아무도 없었다) / No children here will ever know me(여기 아이들은 나를 평생 모를 것이다) Around me the concrete is empty(내 주변의 콘크리트는 텅 비어있고) 와 같은 문장들로 미루어보아 ③번의 desolate and lonely(황량하고 외로운)이 적절하다

① calm and peaceful(차분하고, 평화로운)

② festive and merry(열광적인, 기쁜)

④ horrible and scary(끔찍한, 무서운)

18. 두 번째 빈칸 부분에 더 답을 찾기 쉬운 단서가 있다. 두 번째 빈칸 뒤에 앤드류 카네기는 거의 교육도 받지 못했고 가난했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두 번째 빈칸에는 가난과 관련된 단어가 와야 한다. ①번의 destitute(궁핍한)과 ④번의 impoverished(가난한) 둘 중에 하나가 적절하고 앞의 빈칸에는 "rags to rich"(가난뱅이에서 부자가 된) 이란 표현에 대한 설명이고 이에 대한 예시로 앤드류 카네기를 들고 있다. ④번의 deleterious(해로운) 이란 표현보다 ①번의 quintessential(전형적인)이 들어가야 더 자연스럽다.
 ② exceptive(예외적인) - devout(헌신적인, 독실한)
 ③ interesting(흥미로운) - meticulous(세심한, 꼼꼼한)
19. ①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국경지방은 하나의 주권을 가진 오랜 역사를 상징한다. -> 글의 중간에 "two spheres of sovereignty" 라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틀렸다
 ② 자연이 국경선을 정한 건 아니고 인간사회가 그랬다. -> "It is one thing to draw an arbitrary geographical line ~" 그리고 "Victorious in ~ war" 부분 "The resulting division did not ratify any plan of nature" 부분이 전부 보기 ②번에 대한 설명과 관련이 있다. 정답
 ③ 멕시코와 미국 전쟁은 사람들이 그 경계선을 존중하도록 만들었다. -> 본문에 언급되지 않았다
 ④ Rio Grande는 임의적인 지리적 선으로 여겨졌다. -> 마지막 문장에 "Rio grande는 자연이 제공한 국경선으로" 라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임의적인이란 말과 상충된다.
20. 난폭운전에 대한 정의로 먼저 시작하는 ㉠이 글의 시작이 되고 그 다음은 난폭운전의 원인에 해당하는 ㉡이 따라 와야 논리상 맞다. 원인에 대한 결과로써 As a result로 시작하는 ㉢이 다음에 오고 마지막으로 이런 결과에 대한 부연설명인 ㉣이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총평

난이도 ☐ 매우어려웠다. ☒ 다소어려웠다. ☐ 평이했다.
☐ 다소쉬웠다. ☐ 매우쉬웠다.

총평

어휘: 총 2문제가 출제되었는데 난이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A형 기준 1번 문제는 표제어 중심으로 나와 쉬웠던 반면 2번 문제의 경우 정답이 되는 보기의 단어가 어려워 답을 찍는데 좀 망설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확실히 어휘는 최근 3개년 기출을 보면 다소 평이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논리: 어휘형 논리문제로 총 3문제가 출제되었고, 문장의 난이도도 어렵지 않아 해석만 잘하고 문장의 인과관계만 잘 파악했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거라 예상됩니다.

문법: 총 4문제가 출제되었고 가정법, 동사의 태, 가목적어 진목적어 등 자주 반복했던 유형들의 문법이 출제되었으므로 기본서 위주로 문법을 암기하고 기출이나 모의고사를 반복했다면 어렵지 않게 맞혔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활영어: 생활영어부분도 어휘적인 부분보다는 문맥에 의존하여 풀게끔 출제되었고 내용이나 보기 자체가 평이했다고 생각합니다.

독해: 역시 공무원 영어시험의 관건은 이제 독해가 된 것 같습니다. 작년 서울시보다 글의 길이에서는 평이했지만 글이나 문제 자체의 난이도가 올라갔으며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시간의 압박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빈칸 보다는 글의 흐름이나 삽입, 내용일치와 같은 유형에서 다소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글의 주제와 구조를 빠르게 파악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모두 좋은 결과 있기를 희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